일주문



'…1600년사' 출판기념회

성우 불교TV회장은 29일 오후 4시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에서 '한국불교 1600년사'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화엄사상' 특강

도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30 ~31일 양일간 저녁 7시 부산불교 교육대학에서 '화엄사상' 특강을 한다.



'두산장학회' 이사장

일면 남양주 봉선사 주지는 24일 상계동 보현사에서 두산장학회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백중맞이 어르신잔치

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는 9월2일 석왕사 야외무대에서 어르신 1천여명을 초청, '제14회 백중맞이 어르신 잔치'를 연다.



北 국수공장에 천만원

정우 서울 구룡사 주지는 12일 '북한 사리원 국수공장 지원에 써 달라'며 법타 스님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



日 금봉사와 자매결연

만오 법인종 총무원장은 27일 오후 1시 부산 개운사에서 일본수험본종 금봉사(대표 요시다)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신중탱화 점안식

리선행 횡성 대승사 회주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신중탱화 점안식과 우란분절 기도회향식을 봉행한다.



행정학 박사학위 받아

김병준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각복지재단 이사선임

조성준 민주당 의원(연등회 이사 · 사진 위)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 간사장 · 사진 아래)이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의 신임 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9월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에 온 하버드大 불교동아리 회장 쥬니가

"美불교 사회참여에 관심 많아"



"미국의 불교인구는 전체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미국 불교계는 60년대 이후 줄곧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불자 대부분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중상층에서 초발심을 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한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화계사와 능인선원에서 참선을 공부하며 한국불교의 면면을 살피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불교동아리 회장 데이비드 쥬니가(David Zuniga · 31) 씨. 하버드대에서 종교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쥬니가 회장은 우선 미국에서의 불교의 발전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불자 수는 5~6백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다종교 사회라는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인구통계에서 90% 이상이 '사후 세계를 믿고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미국인의 종교성향은 강하고, 이에 따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쥬니가 회장은 "비불자 중에서도 숭산, 달라이 라마, 틱낙한 스님의 저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며 "이러한 잠재적 불자들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점차 백인 불자들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한 쥬니가 회장은 "이는 미국 불교가 아시아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미국적인 불교로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미국적 불교의 특징은 환경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나 위빠사나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 아시아 불교의 영향 하에 있을 때, 화려한 불단과 의식을 중시했던 예전의 미국불교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99년 창립된 불교동아리가 하버드대 전체 동아리중 4~5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도 이러한 배경 탓으로 풀이했다. 신학대생을 주축으로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불교동아리는 해외고승 초청법회, 일일명상, 파티장에서의 법회, 불교영화보기 등과 같이 일상에서의 신행 활동에 비중을 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숭산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방문기간 동안 참선을 공부해 기뻤고, 참선을 통해 자성을 찾는 한국불교의 수행이 인상 깊었다"며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동아리 내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D. 쥬니가 회장은 경주 남산과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등을 순례하고 30일 출국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처님 말씀은 파경막는 묘약"

이혼예방센터 연 김묘주 소장



"이혼이 부부 갈등의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상담과 설법을 해 파경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한국여성불교연합회내에 이혼예방센터를 설립한 김묘주 소장의 야심찬 각오다. 김 소장은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율 증가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부터 이혼예방센터의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부갈등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김 소장은 "이혼예방센터에는 변호사를 비롯해 가정학자, 스님, 전문상담가 등 다양한 상담위원들이 많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전에 시간만 예약한다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전문 상담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가족화합을 위한 지침서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부부간의 편지쓰기 대회, 가족음악회,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와 함께 법원과 연계해 이혼소송자들의 면담이나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직지' 알리려 천리길 도보순례

김상광 군 14일간 장정 마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도보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태종대를 출발해 밀양~대구~김천~상주~문경~이화령~괴산을 거쳐 21일 목적지인 청주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에 도착해 418km의 장정을 끝낸 김상광군(16세)의 말이다.

청주 경덕중학교 3학년인 김군은 태극기를 꽂고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된 <직지심체요절>을 알리기위해 '직지심경을 찾자'는 홍보물을 부착한 등산용 배낭을 메고, 14일간 하루 평균13시간을 걷는 강행군을 했다.

김 군은 "도보행진을 하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때도 있었지만, 태극기와 <직지심체요절>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아직도 우리의 <직지심체요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놀랐다"는 김 군은 "내년에는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또한번 도보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시각장애 1급 양예홍 씨 동국대서 석사학위



한 시각 장애인이 역경을 딛고 만학의 길을 무사히 마쳐 화제다. 지난 24일 동국대학교 200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제주도에 사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양예홍(5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지부장) 씨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99년 입학한 양 씨는 2년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제주도에서 서울을 오가며 한번도 강의에 빠지지 않고 출석, '장애인가정의 이혼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양 씨는 서울맹아학교를 가정사정으로 중퇴한 후 불혹이 넘은 나이에 중학교 과정을 시작, 12년 동안 학생과 장애인복지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웬티빙 베트남 주석 부인 조계사 방문



천득렁(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부인 웬티빙(Nguyen Thi Vinh) 여사가 23일 오전 조계사를 방문, 법당을 참배한 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웬티빙 여사의 조계사 방문은 22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국가주석 내외가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문을 하는 동안 한국불교의 전통을 둘러보고 싶다는 웬티빙 여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홍스님은 조계사와 한국불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웬티빙 여사와 동남아 불교 방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베트남 스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인상 깊었다"는 지홍스님의 말에 여사는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불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초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웬티빙 여사의 조계사 방문은 20여분 간 이뤄졌으며, 지홍스님은 웬티빙 여사에게 은으로 된 칠보악세사리와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CD를 선물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나눔회 이광현씨 수술비 전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21일 이용구 씨(사진 왼쪽)에게 아들 이광현 씨의 수술비를 전달했다. 후원금은 생명나눔실천회가 지난 7월 한 달간 모금한 9백여 만 원으로, 서울 중앙병원에서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 이 씨의 수술비로 사용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8월 한 달간 최유자 씨의 수술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파주 '호국 하나로 법당' 기공식

군포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1일 경기도 파주 25사단에서 '호국 하나로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군포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군불교진흥회 장세동 이사, 김영훈 육군 제8567부대 3대대장, 한연수 하나로 법당 정기법회 지원팀장 등 4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